

# “정책·아이디어 갖춘 문화 전문기관 도약을”

## ■광주문화재단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광주학총서 발간·콜로키움 사업 시행  
지역문화 씽크탱크 역할 수행 돋보여

창작 선순환 구조 구축 지원 중요  
공연·문학·기초예술 지원에도 힘써야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은 향후 정책과 아이디어 역량을 갖춘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현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비롯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역량을 보다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에 대해 현장 예술가와 문화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문화재단에 대한 바람과 향후 과제 등을 들었다. 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예술향유를 토대로 예술창조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 10년 동안 예방 광주는 문화중심도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허브 구현이라는 네이밍의 변화처럼 일정부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국가기관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 등은 예방 광주의 미래를 일정 부분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문화재단의 10년 성과도 적지 않다. 지역문화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미디어 기반 및 레지던스 사업, 광주의 역사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광주학총서 발간과 콜로키움 사업은 분명 문화재단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무엇보다도 현장 예술가와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조율되는지, 이를 직접 익히고 반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라”고 주문한다.

문화재단 초창기 멤버였던 전고필 전남지오그래픽 소장은 “사회적 역할과 예술인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0년은 조직 안정화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인적 구성원 안정화에만 다소 매몰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소장은 지난 10년을 토대로 ‘신발끈을 조이기 보다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말은 ‘정책을 토대로 문화현장에 좀더 생산적으로 개입하고 의미있게 내재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당금 푸른마을연극 대표는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광주가 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다 보니 공연이나 문학, 기초 예술 등 타 장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는 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아이디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 대표는 특히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역브랜드 단체와 이제 갓 결성된 신생 단체가 같은 사업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은 다소 불합리하다”며 “이를 각각 지속 사업, 신생단체 육성사업, 시민문화사업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뿐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보조금을 전달해주는 교량적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합하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예술 생태계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흥석 광주소극장협회 회장도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기초예술을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기초 예술이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생활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심사제도 보완도 언급했다. (물론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들의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심사 일정을 늘려 심사위원들이 계획서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건비와 제작비로 소모되는 보조금 외에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단 내부에 향한 건설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는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가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화는 다른 분야와 달리 독립성과 창의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순환업무 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보조금 중심의 사업 관리, 행정 공무원 같은 평가 등은 최소한 문화 행정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용태 소설가는 “재단의 지원이 향후 창작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순 조선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광주의 정체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사업이 많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가 지닌 정체성, 철학 등을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황봉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문화다양성을 지켜내는 데 재단 운영의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장에 중심을 둔 문화공공서비스와 문화정책을 견인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다.

그는 “문화산업적 측면만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문화가 지닌 본연의 가치를 자칫 상실할 수 있다”며 “광주와 남도가 지닌 문화적 힘을 지역의 감수성과 결부해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극장 13일 ‘기억의 전쟁’ 특별 상영

## 이길보라 감독과 북 토크도

영화 ‘기억의 전쟁’ 제작팀이 걸어온 5년 여의 여정을 담은 책 ‘기억의 전쟁-기억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가 최근 출간되면서 광주극장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광주극장은 13일 영화 ‘기억의 전쟁’을 특별상영하고, 북 토크를 진행한다.

13일 오후 3시 상영하는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손녀인 이길보라 감독이 할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 베트남에서 듣게 된 50여 년 전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가 끝난 후 오후 4시20분부터는 독립서점 소년의서에서 북 토크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길보라 감독, 조소나·서세림 PD, 박소진 촬영감독이 참여하



며, 진행은 소년의서 책방지기 임인자 독립기획자가 맡는다.

‘기억의 전쟁-기억되지 못한 그날의 이야기’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기억이 충돌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춘 영화에 이어, 그 충돌 지점에서 카메라를 든 이들이 매 순간 직면해야 했던 고민과 지기하고자 했던 마음을 담았다. 특히, ‘기억의 전쟁’ 한복판에서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작진들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영화의 제작기를 넘어 타인의 고통에 다가설 때 필요한 태도와 기억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은 13일 영화 ‘기억의 전쟁’을 특별상영하고, 북 토크를 진행한다. ‘기억의 전쟁’ 스틸컷.

#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신곡·악기 자료집’ 제작

## ACC·아시아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신곡 8수의 작곡과 ‘작곡가’를 위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악기 자료집 전자책 제작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업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문화부가 선정한 대표 작곡가와 연구 집필진이 참여했다.

신곡 작곡은 신남방정책 핵심 키워드인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모두 8개국이 동참해 완성했다.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 나라 신곡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한국의 ‘빛의 아시아’, 말레이시아 ‘펜카 베르슬람(Pencak Bersulam)’, 캄보디아 ‘원 언더 더 세임 스카이(One Under the Same Sky)’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



해 잇달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0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막식’,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막식’ 그리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간에 개최된 ‘문화·예술·유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등 행사에도 초청돼 온라인 공연을 펼쳤다.

신곡 작곡과 함께 제작한 ‘작곡가’를 위한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악기 자료집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가 사용하는 한·아세안 11개국 전통 악기 28종 실물 이미지를 비롯해 구성, 역사, 연주법 등을 담았다. 자료집은 전자책으로 출간되며 향후 오프라인으로도 출판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지회, 가족참여동영상 공모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지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60주년을 기념해 ‘가족참여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며, 동영상은 1분 이상 5분 이내 분량으로, 드라마, UCC, 다큐멘터리 등 장르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응모작은 타 공모전 입상

작이 아닌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동일 및 유사 작품 출품시 수상이 취소된다.

총 7개 작품을 선정 시상하며,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명에는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응모작을 본인 SNS에 등록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비대면, #가족생활, #공모전을 해시태그하면 응모자 전원에게 참가상을 제공한다. 수상자는 25일 발표하고, 4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02-2639-289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첨단 돌돌 감자탕 산포점</b></p> <p>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p> <p>☎ 061)332-6108</p>	<p>행정심판전문행정사 <b>행정법인 맥 행정법률사무소</b></p> <p>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p> <p>☎ 062)523-5885, 010-5665-0150</p>	<p><b>평강안마지압원</b></p> <p>북구 임동 191-13 서림초등학교 후문 앞 만성피로 및 각종 통증관리 근육통, 3차 신경통, 요통, 관절염, 좌골 신경통 국가공인안마센터</p> <p>☎ 062)527-6664, 010-2645-6664</p>	<p><b>문화결혼상담소</b></p>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p> <p>☎ 062)529-0315, 010-3606-5632</p>
<p><b>대신청소전문기업</b></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p> <p>☎ 062)526-1133, 010-6522-1524</p>	<p><b>새희망 직업소개소</b></p> <p>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향시모집</p> <p>☎ 062)531-5511, 010-6522-1524</p>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b>법무사 이영석사무소</b></p> <p>동구 범설로 16-1(자선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학교장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인찰기타법률상담</p> <p>☎ 062)226-7220, 010-3666-7220</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b>필스제화</b></p>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p> <p>☎ 010-4755-9294</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p><b>보광세탁소</b></p> <p>동구 자선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p> <p>☎ 062)227-6815, 010-6681-5412</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남도철학원</b></p>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p> <p>☎ 062)522-9653, 010-8645-2254</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국수나무 광주신안점</b></p> <p>북구 서대대로95(신안교앞 교문상가거중)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재료</p> <p>☎ 062)531-0331, 010-5511-0331</p>
<p><b>드림케어슬루션</b></p> <p>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온·냉 알칼리 이온수기 5분도살(황미쌀) 즉석 도정기</p> <p>☎ 010-3118-5679</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